

농작업 대행단 수확작업 본격

옥수수 적기수확·유해조수 피해 예방 전력... 10월까지 작업 계획

임실군의 민선 7기 핵심사업인 농작업 대행단이 옥수수 수확 대행작업에 본격 나섰다.

군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옥수수 수확 농작업 대행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10월까지 수확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유해조수 피해예방을 위해 민선 7기 전기목적 사업 확대와 함께 사료작물 확대재배 홍보를 강화해 왔다.

그 결과 유해조수 피해가 40~50% 감소하고 재배면적이 120여 ha로 전년(18년 110ha) 대비 10%정도 늘어 수량 증대와 함께 최고 품질의 조사료 생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농작업 대행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사료용 옥수수 농작업대행단 3개조를 편성하여 권역별(중부·서부, 남부, 북부) 옥수수 수확과 더불어 수단 그라스 수확작업까지 확대하여 4년차

하계조사료 수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수량 감소와 유해조수(벧매지, 고라니 등) 피해로 인한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옥수수 수확을 10여일 앞당겨 추진 중이다.

혹서의 날씨에 작업자들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휴식과 냉수 공급 등 작업안전에도 철저를 기하며 옥수수 적기수확과 유해조수 피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조사료용 옥수수 농작업 대행을 신청한 임실을 두곡리 김모 씨는 "농작업대행단을 통해 손쉽게 수확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정말 고맙다"며 "소에게 고품질 옥수수 사일리지 급여로 한우 번식률이 좋아지고 육질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임실 명품 한우 육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옥수수 생육환경이 작년에 비해 좋아 수확량 또한

15%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고품질 사일리지 생산을 위해서 수분함량이 65%내외의 적기 수확으로 사료로서의 상품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농작업대행단 운영을 통한 수확작업 편리성을 제공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 농가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농가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심 민 군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고생하는 농작업 대행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축산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에도 기여해 하나 되어, 모두가 행복한 임실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격려했다.

이어 "앞으로 재배면적을 500ha까지 확대해 축산농가가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여 가족에게 공급함으로써 사료 자급률을 높이고 명품 한우와 명품 치즈 등 축산물 명품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가족과 함께하는 '소아 당뇨캠프' 성료

순창군, 2박 3일 동안 다채로운 프로그램 진행

순창군이 지난 17일 소아 당뇨캠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치유 일번지 순창'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렸다.

군은 캠프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국에서 모인 소아당뇨인 가족 70여명과 함께 순창 실(SHIL)랜드 일원에서 소아당뇨에 관한 이해를 돕고 가족 간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캠프 첫 날인 15일에는 황숙주 순창군수도 직접 교육현장을 찾아 참가자들을 맞이했다. 이날 황 군수는 "소아당뇨는 아이 혼자 해결하기보다 가족이 힘을 모아 극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캠프를 통해 순창에서 생산된 바른 먹거리를 먹고 순창의 자연

속에서 건강을 되찾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아 당뇨캠프는 순창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당뇨협회가 주관했으며, 당뇨로 고통 받고 있는 아이들과 가족들을 위해 순창의 좋은 기운을 받아 몸과 마음 모두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됐다.

소아 당뇨는 주로 10세 전후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인 당뇨와는 달리 인슐린에 의존하는 형태로 치료가 이뤄지다 보니 가족들 간 도움이 무엇보다 필요한 질환이다.

캠프 첫째 날은 가족 간 관계개선과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했으며, 실(SHIL)랜드 내 건강한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진행했다. 둘째 날은 강천산, 발효소스토굴, 고추장체험 등 순창문화체험을 통해 순창의 맛과 멋에 매료되는 시간과 BD(백톤디킨스코리아) 황은영 과장에게 자가 인슐린 주사법을 배우 보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은 과학체험관 관람과 소아 당뇨 부모로 살아간다는 주제로 특강을 듣고 캠프를 마무리 했다.

한편 오는 11월 6일에는 2박 3일에 걸쳐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당뇨캠프를 열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은 캠프를 통해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동안 전국에서 모인 소아당뇨인 가족 70여명과 함께 순창 실(SHIL)랜드 일원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순창군 청소년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3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8일 제주도 여름예술캠프를 떠났다.

청소년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여름예술캠프

순창 복지시설 방문 위문공연

순창군의 다문화 및 비 다문화 학생들이 함께하는 청소년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3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8일 제주도 여름예술캠프를 떠났다.

이번 캠프는 국악교육을 담당하던 전라북도립국악원 예술단원 지도 교사들의 파트별 개인 레슨 및 국악 오케스트라 수업을 통해 연주 실력을 향상하고, 신규·기존 단원들의 상호 배려, 교감 능력 향상을 통해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단원들은 매년 찾아가는 공연으로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공연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프기간에는 '제주

시립희망원'을 방문해 판소리와 민요, 국악가요 등 전통예술을 통해 어르신들과 작은 음악회로 웃음을 나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2년 전 어린 고사리 손으로 처음 악기를 만지며 행복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이제는 사회 약자를 위한 나눔에 동참해 큰 감동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이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주 예술캠프를 마친 후 무지개 국악 오케스트라는 9월 순창 토크음악회와 12월 정기 연주회를 통해 순창군에 따뜻한 예술의 향기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주민주도형 농촌축제 개최

남원시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고자 주민주도형 농촌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보절면 공동체조직에서는 준비한 '노을음악회'와 서도리 주민공동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2019 서도리 가을음악회' 그리고 보절 용평 휴양 체험마을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숲속 작은 음악회' 등 다양하고 풍성한 행사가 계획되어 있다.

지난 10일 큰 호응속에 치러진 '운봉주민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밤 축제'에서는 한 여름 밤의 주민콘서트, 귀신체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폭염 속에서도 8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

무리 되었다.

이 축제는 운봉 농촌중심지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축제로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이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재충전하는 자리가 되었다.

노을음악회는 이달 31일, 2019 서도리 가을음악회와 숲속 작은 음악회는 오는 9월 20일과 9월28일에 개최되며, 이 축제들 역시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스스로 축제 역량을 높인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

남원시 관계자는 "주민들 스스로 활동하는 공동체와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사례를 계속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임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 완료

임실군이 올해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관내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사업은 사용빈도가 높은 이면도로와 골목길, 교차로 등에 도로명판을 설치해 보행자 중심의 편리한 위치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는데 있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군은 5월 하순부터 6월 말까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미설치 구역을 대상으로 시설물 조사를 실시, 보행자용 도로명판 신규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했다.

올해 4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자용 도로명판 317개(벽면형 96개, 가로등 등에 매달아 설치하는 현수식 221개)를 설치했다.

김금순 민원봉사과장은 "주민 불편 해소 및 개발사업 등 도로의 신설 요인이 많아 도로명판 신규 설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도로명판을 보면서 목적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확충과 정비에 힘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남원시(이환주)는 지난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읍·면·동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흡연, 음주, 운동 및 신체활동 등), 예방접종, 질환, 의료이용, 사고 및 중독, 활동제한, 삶의 질 등 건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사회건강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관내 23개 읍면동의 표본 조사로 선정된 약 450가구 900여명(만19세 이상)이며 대상가구에 선정통지서를 사전 발송한 후 관련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 6명이 가정방문하여 노트북을 이용해 1:1로 면접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후에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한다.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조사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파악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 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기 위해 전국 250여개 보건소에서 일제히 실시 중이다.

조사기간 중 조사원은 조사원증을 항상 패용하고 지역사회건강조사의 로고가 인쇄된 붉은색의 티셔츠를 착용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집된 정보는 지역주민의 건강통계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므로 성실히 응답해주시기를 당부하였으며, 특히 조사가구로 선정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하였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방문보건담당(063-620-7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엔 치즈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인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